

광주시 식수원 공급 '빨간불'... 30년 만에 제한급수 우려

동북호 저수율 '심각' 단계
빗물 활용 등 대책 강구
물 아껴쓰기 운동 절실

기후 변화로 광주시 식수원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봄부터 이어진 가뭄이 늦가을까지 장기화되면서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30년 만에 제한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가 오더라도 저수율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행정적 노력과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아껴쓰기 시민운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국가가뭄 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은 32.4%에 그치고 있다.

저수용량은 3095만t. 하루 취수량(22만1000m³)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40일 정도만 물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가뭄이 지속된다면 내년 3월 이후에는 물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북호 저수율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직후인 지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바닥에 페타이어가 드러나있다.

/뉴스

난 9월14일 45.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달 6일 결국 40% 미만으로 내려갔고, 한달 새 30%대 마저 위협받고 있다.

주암호도 1억4900만m³으로, 저수율 32.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암호 역시 수돗물 공급 가능일수가 200일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마른 장마와 마른 태풍으로 두 곳 모두 저수율이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상태로, 가뭄 위기관리단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겨울가뭄까지 지속될 경우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1992년 12월21일부터 1993년 6월1일까지 156일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제한급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 2009년 동북호와 주암호 저수율이 10% 중반까지 급감하며 제한급수가 검토된 적이 있던 하나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광주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

우선, 수돗물 소비량이 월 1만t 이상인 다량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관리하고, 각 자치구와

손잡고 노후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고 꼼꼼한 누수탐사를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지하수 개발에 나서는 한편 빗물저금통 등 자연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블록 포장과 빗물을 모아뒀다가 방류하는 우수저류시설, 식생 수로, 옥상녹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장기 대책으로 상수원 원수 추가 확보와 광주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등이 행정적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영산강 하천수 뿐 아니라 장성댐과 담양댐 용수까지 끌어다가 상수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악의 가뭄은 국가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3급수인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으로 끌어올려 고도정수 처리를 거쳐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동북호와 주암호와 비교해 수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장성댐과 담양댐의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장기적 대안으로 잡고,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무안군

농림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전남 무안군이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공모 사업에 일로읍 용산리 폐정미소 부지가 선정돼 사업비 52억원(국비 26억, 도비 7.8억, 군비 18.2억)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공장, 빈집, 장기방치건물 등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유해시설을 철거 또는 이전해 농촌공간의 재 구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률이 높아진 백련건강생활도로와 연계해 폐정미소 공장과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영암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영암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재난관리단계별 역량을 종합진단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암군은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재난유형별 매뉴얼 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시 실적 상황 관리 재난구호 인프라 확보 및 훈련 부문 등 여러 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전남)=김용환 기자 jjaicecom@

경남도

9·10월 외국인 체납액 1.5억 징수

경상남도는 지난 9~10월 두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1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 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5억 80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10월부터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 징수를 강화하여 추진 중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영주시, 국내 최대 어드벤처 시설 조성 '순항'

복합놀이시설 100종 설치
체험·휴식 공간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영주댐 물문화관 인근에 조성 중인 어드벤처공간 조성사업 시설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주시가 영주댐권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67억원(국·도비 38억원, 시비 29억원)을 투입해 평은면 용혈리 897-1번지 물문화관 일원 4천300m²에 조성 중인 어드벤처공간 조성사업이 내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어드벤처공간 조성사업은 가족단위 피크닉 공간,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 연인들의 공간 등을 모두 갖춘



용혈자연공원 조감도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설계됐다. 액티비트 공간인 어드벤처 시설은 18m 높이 육각 타워형 구조물로 100여 개의 코스로 구성된다.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

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로프, 목재,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코스로 연결된 구조물에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이동하며 스릴을 즐기고 모험심을 길러주는 신개념 레포츠시설로써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이 야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 도모에 제격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m 높이 위의 네트 브리지를 걸으며 아름다운 영주호 경관까지 즐길 수 있다.

시는 어드벤처 시설이 완공되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안전점검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초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북교육청 메타버스로 교육가족과 소통

신규 홍보 플랫폼 도입

경북교육청은 교육가족들과 소통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경북교육 메타버스(https://zep.us/play/8L14r4)' 가상공간을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원격수업이 일상화된 교육 현장의 수요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메타버스를 신규 홍보 플랫폼으로 도입해 경북교육을 메타버스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했다. 메타버스 접속 후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으로 경북교육청 청사를 구현했으며, 세부 맵 구성은 체험교육기관, 미래교육실, 홍보관, 행사장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체험교육기관은 도내 각종 체험교육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수학, 안전, 발명/미래, 메이커 등 체험 테마별 원하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교육실은 경북교육 심벌마크가 담긴 교복을 입은 아바타로 변신해 2023-2026 경북미래교육 계획에 따른 미래의 교실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다.

홍보관은 기존 SNS와 연계해 카드뉴스, 영상, 소식지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탑재하며, 교육감 집무실을 구현한 공간에서 교육감 아바타도 만나볼 수 있다.

완도군,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큰 호응'

약 1km에 달하는 숲

완도군에서 추진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가로 경관 개선, 주민 쉼터 제공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청정바다수도에 걸맞은 도심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관계 기관에 해당 사업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기후 대응 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완도연안여객터미널 도로변과 농공단지 사거리 등 2개소에 숲을 조성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은 24시간 항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 및 화물차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이용 차량의 경우 연간 300만 대에 육박하고 특히 화물차 비중이 매우 높다.

화물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등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해륙풍과 편서풍 등으로 인근 주거 지역에 유입될 위험이 있어 미세먼지 차단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지역 난대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겨울철 동해에 강한 동청목을 식재하여 약 1km에 달하는 숲을 조성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2023년 최고의 여행지 35 선정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거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지난달 26일 '2023년 최고의 여행지 35'에 부산을 꼽았다. 이번 '2023년 최고의 여행지 35'에 자연, 모험, 가족 여행지, 커뮤니티, 문화 등 모두 5개 부문, 각 7개 도시를 발표했으며, 부산은 문화 부문 7개 도시에 선정됐다.

선정 이유로는 "부산은 산과 바다를 함께 갖추고 있어 다양한 매력에 공존하며, 문화와 음식 등 관광자원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모든 여행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